

전문가?



박 청 정

참으로 많은 일을 한 것 같고 앞으로 할 일이 많은 것  
같은데.....

이제 년 말이면

이 길(전산)을 걸어 온지 30년 ?

아 !

감회가 깊은 것 같은데....

왜 ? 이렇게 허전한 마음뿐인가 ?

정말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 ?

낙엽 지는 가을에 혼자서 어디론가 외롭게 견고 있는 서글픔....

---

약력 : • 75~83 체신부 업무분석관 • 83~96 한국증권전산(주) • 현재 (주)어뉴텍코리아 대표이사

3년 전에, 그것도 58세의 나이에  
“자네 성격에 무슨 사업인가 ? “ 라는 선배님의 만류를 뿌리치고  
그 무슨 한이 있어서.....

상사의 지시통제 속에서  
월급 받고, 간섭도 받고, 일만하던 생활에서 벗어난 이 자유로  
움..

야 !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을 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찬스.....  
무한한 창공을 마음대로 날 수 있는 이 기쁨..... 그것은 잠  
시.....?

그런데 왜 이렇게 역풍이 켜지..... 아이쿠 비즈니스 선배님  
들, 그리고 남산에서 돌을 던지면 세 사람중 한 사람이라는 ‘사장  
님’ 들, 기업가 ! 자본주의의 꽃 ! 정말로 자랑스럽게 존경합니다.

창업을 하자마자  
일감이 생겨 덜컥 잡은 것이 어느 제조업 종합온라인 시스템구  
축..... 그런데 이 때 어느 선배님께서  
“박 사장! 계약액수의 3배를 투입하려면 하고 아니면 하지마 !”  
라는 그 황금 같은 충고 한마디를 이 망할 고집이....자만심  
이.....

“나는 안 그럴 거야.....” 라고 생각하면서 일은 계속됐다.

결과는 비참했다.

내 이름이 淸正이라서 그런지? 정말로 그 동안 소위 전문가라는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또한 기업의 중장기 차원의 기반구조를 잘 구축해 주면 얼마나 좋아 할 가.....나의 손익계산서는 나중 문제...

“자네 성격에 무슨 사업이야?”

“제조업 하려면 계약액 3배를 털어 넣게..” 라는 선배의 충고가 주마등처럼 내 뼈 속으로.....쌘쓸한 담배연기만 뿜을 수밖에.....

역사는 잘 모르지만

저 만주벌판이 우리의 땅....., 찬란한 고려자기....., 팔만대장경의 인쇄술.....,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.....,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었던 화약무기....., 다 어디로 가고 그야말로 토끼 만한 좁은 땅에서 잘 났다고 까부는 한심한 작태들.....

관리가 기술을 지배하고

하나를 주고 열을 얻으려는 인간의 추악한 심보.

사람잡는 선무당이 ‘자기가 선무당인 줄도 모르는 주재들..’

도움을 받고 안 갚아도 좋은데 도움을 받은 것도 모르는 한심이.....

이 모든 것이 내 자신을 허탈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?

내가 프로그램을 배울 때는 한글 매뉴얼도 없었네....

아니 우리 나라에 컴퓨터라는 것이 기껏해야 두서너 대 있었다니까 !

이 사람이 몇 년 후에 대학에 전자계산학과가 생길 때는 신기했어...

그래서 한국정보처리전문가협회에 끼워 줬나봐.....

응 그래서 당신이 전문가라는 사람이구만.....

그렇다면, 바로 당신이 전문가라면 당신을 허탈하게

만든 것은 바로 당신 자신 아니오. 듣고 보니.....

이 땅에 정보처리 전문가님들 !

관리에 놀리고, 선무당한테 놀리고, 돈이라는 힘에 놀리고

그나마 좁은 공간을 외 산 H/W와S/W에 자리까지 내주고.....

이 땅에 S/W산업으로 성공한 예가 얼마나 될까 ?

필자에 앞서 청운에 꿈을 안고 비즈니스를 출발한 선배님들 !

그나마 IMF가 닥치니까 다들 허덕이고 있었지 않아요. ?

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? .....

필자는

“용역을 주고받을 때 각 단계의 구분이 명확히 돼서 그 가치의 보상을 반드시 얻어내야 될 것 같아요. 즉 컨설팅, 조사분석, 기본(상세)설계, 개발, 운용의 인력과 자원의 투입을 상호간에 정당하게 인정을 하고 해주는 풍토를 조성해야 되겠다”는 이야기입니다.

참으로 ABC같은 이야기한다고 생각이 드시지요 ?

그래요. 우리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‘적당히 알아서 해줘.....  
대충 대충하지 뭐’, ‘그때 가서 의논해서 서로 공평하게 하면 돼’  
알아서? 대충? 공평하게? 의 기준을 정하지도 않고 나중에 싸움  
질...

우리는 이 용어들의 장단점을 알면서도 못 고치는 것도 또 단  
점.....

그렇습니다.

한두 사람이 안되지요.

우리 전문가님들만으로도 안되지요.

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가치를 존중해 주고 평가받지 못하  
면 어떻게 R&D 비용을 축적하고 기술축적의 원동력을 기르겠어  
요.

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구요 ?

존경하는 대학교수님들 !

연구단체의 연구원님들 !

정보통신 정책연구와 시현을 담당하는 공무원님들 !

“한국의 S/W산업은 잘 되고 있는가? 안 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  
가?” 를 의제로 연구해 볼 가치가 없을까요 ?

연구결과를 세미나도 하고 확산 운동도 하는 노력이 필요 없을까  
요?

기업이 잘 돼야 경제도 잘되고, 경제가 잘 돼야 행복한 웃음도.....

이 것이 정녕 문제라면 정부나 공공기관 전산업무부터 실천하면서 협회 같은 곳을 통하여 점차 민간부문으로 확산한다면 어떨까 ?

언젠가 값아야 하는 자금대여도 좋지만 돈 안 들면서 기업성장을 시킬 수 있는 자양분이 가득 담긴 정책개발을 기다리며…….

오늘도 저 넓고 주인이 없다는 Cyber 영토에 울타리를 치기 위한 외로운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구나…….